



## 도민 곁으로... '소통·공감' 의정 활동 나서



눈부셨던 제주의 여름

소리를 건넌 여름을 남겼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시원함을 만끽하게 한다. 폭염과 피로감이 여유를 흔들었지만, 그래도 제주의 여름은 눈부셨다. 깊은 수심과 웅암 기암, 소나무 숲에 사람이 포개진 서귀포 쇠소깍의 시간이 짙어간다. 다가올 계절 채비에 앞서 잠시 숨을 돌려보면 어떨까.



### 제주도의회 현장소통방문 도민 의견 직접 수렴 등 활발한 의정 활동 전개 지속적인 소통 행보 예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활발한 현장 소통에 나서고 있다. 도민들로부터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현장 밀착형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6월20일 제주특별자치도 보훈단체협의회와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현장 소통을 알렸다. 보훈단체의 활동 상황과 애로 사항 등을 경청하고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김경학 의장은 “보훈단체와 보훈가족들의 권익 신장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6월23일에는 제주시 구좌읍에 있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로부터 운영 현황을 듣고 시설 점검에 나섰다. 소각시설과 매립시설, 침출수 고도처리시설과 주민편익시설 건설 현장 등을 둘러보며 운영 현황 및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경학 의장은 “무엇보다 안전한 시설 운영이 중요하다. 주민 편익 시설인 만큼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현장 중심 의정 구현의 다짐은 7월에도 이어졌다. 7월21일 제주연구원 제주지하수연구센터 현장을 방문해 기후변화 대비 제주 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현황을

점검한 한편 7월23일에는 제주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제주상의 회장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제주상의 회장단은 △과도한 규제 개선 △소상공인 지원 확대 △업체 시설개선 자금 지원 확대 △골재 공공개발 △고도 제한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김경학 의장은 “의회에서도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보다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8월의 현장 소통은 제주시 동문수산시장에서 진행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일 제주동문수산시장 상인회와 상인들을 만나 수산물 소비 촉진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양성운 상인회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그 여파로 매출이 30% 가량 감소한 가운데 인건비와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상인들이 떠나는 상황”이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상인 김태현씨도 “제주 청정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등 소비촉진 캠페인이 적극 진행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경학 의장은 “도의회에서는 수산물 안전성과 우수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소비촉진을 위해 더욱 힘을 보태겠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도민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현장 소통 방문을 지속 예고하는 등 도민과의 소통 공감을 넓히기로 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월간 「도민광장」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3

주요 이슈

4~5

도의회 이모저모

6

자문위원에게 듣는다

7

인턴체험 활동기

8

의회 사무처 소식



# 민생안정 최우선 “도정과 적극적인 소통”

제주도의회-제주도 16일  
제4회 상설정책협의회 개최  
대규모 세수 결손 우려 상황  
내년도 예산 정책 방향 논의  
7개 주요 사항 합의 이뤄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재정위기 속에서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데 합의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4회 상설정책협의회를 열고 긴급 재정점검과 내년도 예산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상설정책협의회는 최근 국세징수 감소로 2,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제주도의 재정을 긴급 점검하고 내년도 예산 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김경학 의장의 제안에 오영훈 지사가 화답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7개 주요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우선 사상 최대 국세 결손에 대응해 2023년 지출 조정과 계속비 등 일부 사업에 대한 2024년 예산편성 연계 조정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이어 대내외 재정여건에 따른 긴축 재정 및 지출구조 체질 개선 여건을 감안해 '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상호 협력하는 한편 민생경제,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호 소통하며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공동으로 국비 확보단을 구성해 내년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복지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장애인 생활시설을 조속히 추진, 복지시설 확충 및 도내대학 특수교육과

설치 등 사회서비스 필수인력 양성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농가 부담 경감 대책 일환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과 시설 구축 등을 위한 예산확보에 공동으로 노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방안 마련과 제주 수산물 소비위축 피해 지원을 위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 등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날 오영훈 지사는 “세입이 크게 줄고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선제적 재정 전략과 국비 확보, 효율적 예산 집행 등을 추진해 나가려면 그 어느 때보다 도정과 의회 간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 협의를 진행해왔다. 오늘 합의를 바탕으로 도의회와 함께 지혜를 내면서 현안과 갈등 사안에 대한 좋은 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학 의장은 이에 대해 “의회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도정과 계속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생활시설의 조속한 마련,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확대를 위한 시설 구축 등 주요 현안을 도정이 의지를 함께 모아 합의해 준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 도의회-제주대, 상생발전 머리 맞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대학교는 지난 10일 제주대학교 본관 대회의실에서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2차 정책간담회를 개최,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양 기관의 협력 방안과 지방대학의 정책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12월에 열린 첫 간담회에 이은 두 번째로, 김대진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동홍동), 강철남 행정자치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울),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 이승아 문화관광체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라동), 김창식 교육위원장(교육의원, 제주시 서부), 김애숙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첫 간담회 시 상호 협력 사항으로 논의됐던 △지역 주도의 인재양성 모델 정립을 위한 지자체, 대학 및 기업 간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 △도의회-제주대 연구상생 협력 체계 구축 △지역 필수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학과 개설 △지



10일 2차 정책간담회에서 협력 사항 후속 조치 공유  
특수교육과 신설 및 지역 인재 육성 방안 논의도

역 인재의 지방대학 입학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협력 등에 대한 후속 조치 사항 등을 공유했다. 제주대학교는 김경학 의장이 요청한 특수교육과 신설에 대해 필요성과 전국 및 제주 특수교육 및 특수교사 임용 현황, 신설시 검토 사항에 대해 자세

히 설명하기도 했다.

신규 협력 사항으로 △제주대학교 병원 내 발달장애인 거점 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 △천원의 아침밥 학생 접근성 확대 방안 △글로벌 대학30 사업유치를 통한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일환 제주대학교 총장은 “제주도의회와 제주대학교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경학 의장은 “최근 젊은 층의 제주 이탈이 늘고 있는 만큼 제주대학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의회에서 다각적인 지원과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지역 발전과 대학 발전을 위해 논의 사항들이 하나씩 이뤄질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제주도의회, 몽골서 교류 협력 강화

대표단 7월25~29일 방문  
투브아이막의회서 공식 초청  
다양한 분야 교류 방안 논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표단이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4박5일간의 일정으로 몽골을 방문, 경제·문화·관광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 방안 구축을 위한 협의를 이끌어냈다.

이번 방문은 몽골 투브아이막의회 개원 100주년을 맞아 투브아이막의회에서 제주도의회를 공식 초청한 것으로, 대표단에는 김대진(더불어민주당, 동홍동)·김항국(국민의힘, 용담1·용담2동)부의장을 비롯해 송영훈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원읍), 강철남 행정자치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읍)이 참여했다.

방문기간중 대표단은 7월26일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을 방문해 김종구 대사 및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제주와 몽골 간 교류 활성화 방안 및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김대진 부의장은 “제주와 몽골 간 상호 협력 및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플랫폼의 역할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면서 “앞으로도 양 지역 간 교류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7월27일에는 몽골 투브아이막의회 개원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체렌 도르이 잠발수렌 투브아이막의회 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양 의회 간 공동 발전을 위한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한 협의와 공동 협력사업 발굴 등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잠발수렌 의장은 “양 의회가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공동 발전 협력 방안을 찾는데 양 지역이 노력했으면 한다”며 “제주에는 관광업이 발전한 만큼 양 지역 관광 관련 기관들의 교류가 이뤄지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대표단은 KOICA(한국국제협력단) 몽골 사무소도 방문했다. 7월28일 이뤄진 방문에서는 KOICA 몽골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과 성과 등을 청취하는 한편 제주도의회 KOICA 몽골사무소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대진 부의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와 몽골 투브아이막의회 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도 아낌없는 도움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주문했다.



## 문화예술 ‘공공외교’

지역문화특화발전연구회  
7월, 몽골 문화교류 나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역문화특화발전연구회(대표의원 양용만, 국민의힘, 한림읍)가 지난달 20~24일 몽골 문화 교류에 나섰다.

방문 기간 중 7월21일에는 몽골 울란바타르시 칭길테이 구의회에서 제주와 몽골 간 국제적인 호혜 관계 유지를 위한 문화교류로 지역문화의 특수성을 문화관광자원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같은 날 몽골 센터와 한국관광공사 몽골지사를 방문한 데 이어 게르 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용품과 제주 세계유산홍보물을 전달하기도 했다.

다음날인 7월22일에는 울란바타르시 문화예술 현장 방문 일환으로 국립칭키스칸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대극장을 찾아 몽골의 문화예술 작품을 둘러봤다.

양용만 대표의원은 “이번 방문을 통해 제주와 몽골 간 국제문화교류 의지를 확인하게 됐다”면서 “몽골 뿐 아니라 제주의 전통문화가 상품화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 “장애인 생활 시설 신설 예산 꼭 반영돼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9일 장애인거주시설인 사랑의 집을 방문해 직원과 시설입소자를 격려했다.

2006년 설립된 사랑의 집은 반복적인 인권침해 및 운영법인의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시설 폐쇄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다만 시설 이용자의 전원 조치와 권익 보호를 위해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임시시설장을 선임해 운영 중이다.

임시시설장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천한 이승희씨가 선임됐고, 결원된 직원은 채용에 나섰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김경학 의장을 비롯해 강성익(더불어민주당, 화북

김경학 의장 등 9일  
사랑의 집서 간담회 진행  
이용자 전원 조치 당부

동)·현지홍(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원이 동행, 시설 폐쇄와 임시시설장 채용 이후의 운영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관계 공무원과의 간담회도 함께 열린 가운데 이승희 시설장은 △생계비·인건비 자부담분 15% 지자체 지원 △인력 충원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을 건의했다.

김경학 의장은 “임시 조치이긴 하



나 입소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사랑의 집 이용 장애인들이 원활하게 전원 조치가 이뤄질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한 “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입소자들의 다양한 활동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내년에 장애인 생활 시설 신설 관련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관계 공무원에게 당부했다.



## “생태법인, 제주 생태자원 알리는 계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대표의원 송창권, 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은 지난달 2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도입에 따른 제주해양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진희종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강사가 ‘제주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제도 도입 이론적 배경 및 공론화 전개 과정’에 대해, 김익태 KBS기자가 ‘제주 가치의 관점에서 남방큰돌고래 생태관광’에 대해 발표에 나섰다.

진희종 강사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통한 제주남방큰돌고래의 종의

###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 7월28일 정책토론회 개최 다양한 공생 발전 방안 나와

보호와 제주해양 생태계 보호 노력은 인류 사회에 제주의 우수한 생태적 자원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제주도민의 성숙한 생태소양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열린 패널토론에서는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이 좌장을 맡고 황경수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도희 민주시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양수남 제주 자연의 벗 사무처장 등이 참석해 의

견을 공유했다.

송창권 대표의원은 “과거 제주 연안에 분포하는 남방큰돌고래는 1천 마리 이상 서식하고 있었지만, 폐플라스틱과 페어구 등 해양쓰레기로 인해 매년 개체수가 줄어들어 현재는 남방큰돌고래가 120여마리로 급격히 감소, 국제적인 멸종 위기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해 지난해 4월 정책토론회를 개최, 생태법인 제주특별법 입안 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도민 의견 수렴을 통해 공생 발전할 수 있는 제주 해양 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인공지능 기술, 실제 적용 가능성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균형발전특별자치입법정책포럼(공동대표 정민구(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현길호(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의원)은 지난달 20일 국내 대표 IT기업인 네이버를 방문해 ‘초거대 인공지능(AI) 기술과 제주의 가능성’에 관한 특강을 청취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특강에서는 네이버 김필수 실장이 강연자로 나서 초거대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인 공공데이터의 중요성 및 행정에서의 활용사례와 AI기술의 제주 헬스케어 산업의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정민구 공동대표는 “초거대 인공지능 기술이 헬스케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면서 “독거노인의 위험 상황 인지, 정서와 질병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길호 공동대표 역시 “챗GPT로 대변되는 초거대 인공지능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면서 “기술의 핵심인 공공데이터의 축적과 활용을 통해 제주도정의 행정을 과학화하고 효율화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제주지역 간병서비스 제도적 접근 추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회보장특별위원회(위원장 현지홍,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가 제주지역의 간병인을 대상으로 한 ‘간병서비스 실태조사’에 나섰다.

7월부터 8월까지 진행되는 조사는 제주도내 증가하는 간병서비스 수요에 따른 사회적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간병서비스 제도화 필요 내용과 인식, 간병인 근로환경, 권리 증진 등을 파악하게 된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제주지역 간병서비스 질과 이용의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간병서비스가 이뤄지는 현장을 반영한 정책의 기초자료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지홍 위원장은 “간병서비스의 제도적 접근은 제주지역 의료 및 돌봄의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수적 요소”라면서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회, 간담회, 용역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공공요금 정보 쉽게 제공해야”

### 도의회 재정경제포럼 11일 공공요금 연구용역 보고회 제주에 적합한 시책 주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재정경제포럼(대표의원 박호형, 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은 지난 11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지역 공공요금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용역을 수행한 (사)한국지역혁신연구원 문만석 원장은 공공요금과 관련된 정보를 소비자가 이해하고 비교하기 쉽도록 제공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지역 공공요금의 가격 변동 조정 기능 강화와 물가대책위원회 기능 제고, 에너지 복지 조례 제정 검토 등을 주문했다.

제주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시책으로 지방 공공요금에 대한 소상공



공인의 분할 납부 적용의 필요성과 에너지 바우처 제도의 대상 확대 등을 제시했다. 공공요금 가격에 대한 체계적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도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제주도정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과 관련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박호형 대표의원은 “이 연구를 바

탕으로 도민이 직접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공공요금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 향후 재정경제포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요 현안에 대해 의원님들과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를 갖겠다”고 밝혔다.



# 제주-부산, 한반도 해녀 네트워크 구축 추진

제주도의회·부산시의회  
18일 순회 토론회 개최  
“정부 차원 정책 수립 등  
협업 통한 노력 기울일 것”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 국민의힘, 표선면)는 지난 18일 부산광역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 해양도시안전위원회와 공동으로 ‘한반도 해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부산권역 순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과 박호형(더불어민주당, 일도2동)·강성의(더불어민주당, 화북동)·김승준(더불어민주당, 한경·추자면)·강충룡(국민의힘, 송산·효돈·영천동)의원을 비롯해 안성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김희현 제주특별자치도 정부부지사 등이 참석했다.

(재)독도재단 김수희 교육연구부장이 ‘한반도 해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확대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에 나섰다.

김수희 교육연구부장은 “해녀어업은 한국해양문화 전파와 해양관광산업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그 어업이 지닌 성격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인문학적 연구가 축적되어 있지 않아 해양콘텐츠 활



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역별로 체계적인 조사·연구로 해녀 어업상을 구축하고 한국해녀의 역사상과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사업에 제주도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이 요망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 네트워크 구축 △해녀 정체성 확립 △제주 해녀 복지 지원 대책 마련 △마을어장의 바다자원 관리 방안 및 해녀어업을 지속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주제 발표가 끝난 뒤 열린 토론회에서는 박호형 의원이 좌장을 맡고 강충룡 의원, 김계숙 제주해

녀협회장, ㈜크립톤엑스 고미 제주사업본부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박호형 의원은 “현재 전국의 해녀는 전통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7년부터 국가문화재 제132호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녀 보전 정책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별 조례로 추진되고 있어 지역적 한계가 명확하다”며 “정부차원의 해녀보전 정책 수립 요구를 위해 한반도 해녀의 시작점인 부산광역시와의 협업을 통해 해녀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당 현수막 난립…“게시 제한 뒤야”

환경도시위원회 17일  
관리체계 개선 자문회의  
옥외광고물 조례개정 관련  
실효성 있는 추진 주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 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는 지난 17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현수막 관리체계 개선 및 조례개정 등을 위한 관계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현수막의 관리체계 개선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옥외광고물 조례 일부개정안에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개량 사업 활성화 △현수막 표시 방법 개선 △정당 현수막 등 비영리 목적 광고물 등도 허가 및 신고 적용 △불법 광고물 신고 센터 설치·운영 △현수막 광고물 실명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날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은 “정당 현수막이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다”면서 “인천시를 시작으로 광주시, 울산시도 이를 규제하기 위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 현수막의 경우 지정게시대에 게시를 하거나 아니면 개수를 제한한다든지 실효성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용우 제주도옥외광고협회장은 “정당현수막을 게시대에 달게 되면 도로가 미관상 더 깨끗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게시대는 모두 인도 뒤로 설치돼 있는데, 정당게시대는 차도 경계석으로 빼서 설치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송창권 위원장은 이날 자문회의를 통해 “기준에 맞지 않게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정당 현수막 및 광고 현수막 그리고 비영리 현수막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해 폭넓은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관계자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면서 “자문회의를 통해 현수막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으로 아름다운 경관과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장애인스포츠 인권 침해, 보장 방안은

문화관광체육위 7월27일  
토론회 열고 개선안 모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승아, 더불어민주당, 오라동)는 지난달 27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장애인 스포츠인권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좌장을 맡은 박두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스포츠윤리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스포츠 선수 5명 중 1명이 인권침해를 당했을 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장애인 체육계가 워낙 좁아 선수 생활에 불이익이나 보복을 당할까봐 신고를 두려워하는 점을 감안하면 사

각지대는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스포츠인권은 장애인, 스포츠, 인권이라는 각각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스포츠인권 조례’ 제정 추진과 현재 보조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스포츠인권상담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방식 운영 방안 마련 등의 계획을 설명했다.

한편 박두화·한권 의원은 제주 장애인스포츠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마련을 위해 지난 3일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를 방문하는 등 벤치마킹 사례조사에 나섰다.

### 김경학 의장, 서이초 교사 추모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지난달 22일 제주도교육청 주차장에 마련된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분향소를 찾아 고인의 명복

을 빌었다.

김경학 의장은 분향소에 마련된 방명록에 ‘다시는 안타까운 죽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남겼다.

**이 창 준** 의정자문위원장

제12대 전반기 의정자문위원회가 출범한 지 1년이 되어가고 있다. 의정자문위원회는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의 다양한 경험과 식견, 현장에서 도민과 긴밀하게 소통한 다양한 의견들을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자문하고 제언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지난 1년 분과회의와 전체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고, 남은 기간 각 분과별로 제주도의 각종 현안 등에 대해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공유하고자 한다. 의정자문위원회 의견이 제주를 위한 발전 방안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의회에서 이 같은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한다.

**강 순 배** 의회운영분과위원장

제12대 제주도의회 개원 후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 중인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사회적·경제적 상황에서 지방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흐름에 맞도록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삶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입법 활동을 부탁드린다. 또한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재정 관련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들과 소통하고 의사를 수렴하면서 정책 과정에 반영, 보다 살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 힘써줄 것을 희망한다.

**김 창 운** 행정자치분과위원장

도서산간지역에 추가 택배 배송비를 억제하는 법 개정 추진과 함께 9월 한 달 제주지역 생활물류비 운임지원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돼 기쁜 마음이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 도에 물류비 지원사업을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제주를 도서에서 예외로 적용, 물류비지원대상에서 제외해왔다. 이에 도민들은 내륙보다 4~5배 비싼 택배비를 부담해야만 했다. 늦었지만 해양수산부에서 제주를 섬으로 인정하고 물류비를 지원하는 물꼬를 텄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기에 금번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법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도와 도의회, 사회단체들의 힘을 모아야 한다. 도의회에서도 국회의 관련법 통과에 힘을 싣도록 계류 중인 택배표준 도선료 조례를 조속히 의결했으면 한다.

**고 속 희** 보건복지안전분과위원장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저출산과 인구감소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지만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서 아이를 낳고 키우기에 세상이 팍팍해졌다는 생각을 종종한다. 아동 출입제한 업소 ‘노키즈존’이 이런 현실의 단상이다. 우는 아이를 달래는 부모에게 얼굴을 찌푸릴 때도 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 and 인식 개선을 위한 좋은 사회적 부모, 좋은 어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 키우기 좋은 마을 ‘제주’가 되도록 지역사회, 기업, 공공분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 제주도의회가 좀 더 세심하게 살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향한

# 의정자문위원의 목소리를 듣다!

**현 명 택** 환경도시분과위원장

최근 전세계적으로 기상이변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례 없는 여름철 고온 현상으로 국제 잼버리 대회의 차질 뿐 아니라 많은 온열환자의 발생까지 우리가 직접 기후변화의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체감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재난적 상황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의 개발과 보존이라는 2가지 가치를 조화롭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비록 제주도라는 아주 좁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긴 해도 기후변화의 위기에 대응하는 모범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실제로 구현해 나간다면 제주도가 세계적인 위상을 갖추고 따라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거주 환경이 뛰어난 곳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순 선** 문화관광체육분과위원장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하고 전반기 의정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한지 1년여 정도가 지났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경제·금융 위기까지 겹치며 도민의 삶이 녹록지 않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제주 항공노선의 축소, 해외여행 증가에 따른 입도 관광객 감소 등의 영향으로 도내 관광산업이 어렵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어려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과 함께 도민의 삶을 더욱 보듬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자문위원회에서도 문화관광체육분야 정책과 예산 등에 대하여 잘 살피고, 활발하게 자문과 제언을 펼쳐나가겠다. 나아가 우리 후손들에게 ‘제주다운 것’들이 계승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정책들이 추진되기를 희망한다.

**최 영 만** 농수축경제분과위원장

전기 요금 인상 여파로 제주지역 1차 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생산농가의 한숨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농사용 전력은 농작물 재배, 축산, 수산물 양식, 농수산물 저온 보관 등에 적용된다. 전기 요금 인상에 따라 연간 350억 원 이상 추가 비용이 분석되고 있는 가운데 1차 산업 경영에 부담이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가온 하우스 시설농가는 예년에 비해 80% 정도 인상된 전기료 부담에 경영난을 토로하고 있다. 전국 농업 전력 사용량 비중은 3.5% 수준인데 반해 제주도는 25.4%로 1차 산업 생산자의 경영위기에 대처하는 현실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주도의회 도약을 응원하며 지속 가능한 1차 산업 조성과 지역 경제 안정화 방안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

**안 동 훈** 교육분과위원장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교육위원회 의원님을 비롯한 제주도의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요즘 학생 인권과 교권이 대립하는 듯한 모습에 학생 인권과 교권이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 씁쓸하다. 과거 교사를 스승으로 생각했던 것과 달리 현재는 서비스 제공자와 제공받는 자의 관계로 바뀐 것 같다. 사실 교사의 역할은 단순 수업을 진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학습과 인성교육 등 교육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교사다. 교사의 권위 실추는 결국 우리 모두의 피해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한다.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존중과 신뢰를 받고 학생이 교사에게 존중과 사랑 받는 교육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 동 희

제주관광대학교  
의료관광중국어학과 4학년

## “더 나은 제주를 위해 노력하는 곳”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내게 조금은 생소한 곳이었다. 내가 근무했던 공보관실은 더더욱 들어본 적 없었고, 어떤 업무를 할지 전혀 가늠이 가지 않았었다. 내가 한 첫 업무는 영상 촬영 업무 보조를 하는 것이었다. 어디서든 쉽게 접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닌걸 알기에 설레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했다.

인턴 기간 제일 좋았던 점은 영상 촬영을 위해 의회 내에서 실시하는 토론회, 세미나 등의 행사들을 현장에서 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7월에 임시회가 있어, 운 좋게 본회의장도 들어가 보고, 현장 방문을 제외한 상임위원회별 회의 등 회기 기간의 일정 대부분을 함께할 수 있었다. 이런 행사들을 직접 봄으로써 도의원분들이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세미나와 토론회 등을 지속 개최하고, 도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실감하게 됐다.

인턴 활동이 끝난 이후에도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제주도의회에 관심을

계속 가지려고 한다. 공보관실에서 근무했던 만큼 주변 지인들에게도 도의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고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널리 알리려고 노력할 것이다. 내 또래들이 지역 현안에 관심을 가지므로써 더 나은 제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마지막으로 비록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아들, 동생처럼 잘 챙겨주신 모든 직원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김 예 림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3학년

## “의정 활동을 경험해본 소중한 시간”

비록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실제로 행해지는 의정활동을 경험해볼 수 있는 소중한 뜻깊은 시간이었다. 내가 일하게 된 부서는 의사담당관실이었다.

인턴으로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곧 개최할 임시회 회의관련 업무였다. 각 부서에 조례안들을 배부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의사담당관실이라는 곳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제대로 모르는 상태였기에 단순히 주어진 업무

처리에 바빴다. 이후에 의사담당관실 업무를 찾아보게 되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중요성을 깨닫고 더욱 책임감을 갖게 됐다.

임시회 1차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 나는 본회의장으로 가서 명패와 필기구 등을 제자리에 놓으며 자리를 정돈하고 리허설을 진행했다. 방송에서만 보던 본회의장에 직접 가보고 돌아다니며 정리하는 것은 새로운 경험이었고 위압감이 느껴지기도 했다. 인턴 활동 후반에

는 주로 청소년 의회 의정체험 관련 업무를 했다. 청소년 의정체험도 본회의와 마찬가지로 본회의장에서 진행되며 그렇기에 명패를 준비해야 되는 것만 제외하면 내가 하는 일도 비슷했다.

지난 한 달간 즐겁게 인턴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직원분들이 따뜻하게 맞이해주시고 챙겨주신 덕분이었다. 짧았지만 이번을 계기로 일도, 사회생활도 미리 경험하며 한층 성장해나갈 수 있었다.



강 유 민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2학년

## “본회의 참관, 뜻깊은 경험이었다”

인턴 체험을 했던 지난 한 달,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걸 배우고 성장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모든 게 다 의미 있는 경험이었지만 그중에서 본회의 참관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조례 제정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듣고 본회의장에서 어떻게 안건이 처리되는지 알게 됐다.

의회에서 단순히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제정하기에 앞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자치입법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함께 검토했던 것도 기억에 남는다.

공모에 나온 아이디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에서 동일하거나 기본구상이 유사한 경우로 정책이나 자치법규에 이미 활용됐는지 확인하는 일이었다. 기존의 정책들과 조례들을 찾아보면서 새롭게 알게 된 부분도 있었고, 공모에 나온 아이디어를 통해 일

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본 기회가 됐다.

또한 차세대 정책포럼 주제선정 제안서를 작성하면서 주제 선정 과정에서 제주에서 필요한 정책 분야를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경험도 할 수 있었다.

이번 인턴 체험이 지역 전반에 관심을 기울이는 마중물 역할이 됐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나을 제주의 미래를 위해 함께하는 제주도민이 돼야겠다고 다짐했다.



고 서 연

제주한라대학교 간호학과 2학년

## “쉽게 해볼 수 없는 경험, 좋은 기억으로 남아”

7월 한 달 동안에 인턴 생활이 끝났다. 첫 출근 당시 도의회라는 곳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아 걱정도 됐다. 하지만 배정받은 사무실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도와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근무를 할 수 있었다.

보통 ‘도의회’를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마 의사당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장면일지 모른다. 하지만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의원님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제주도를 위한 활

발한 의정활동을 모습을 마주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많은 사람이 제주도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 분들과 함께 한 달 동안 일을 할 수 있어 감사하고 혹여나 내가 피해를 끼치지 않는까 걱정도 많이 했던 것 같다. 주어진 일에 책임을 가지고 성실히 일하려 노력했던 이유다.

특히 7월 12일에 진행된 임시회를 방청할 수 있었는데 너무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 회의가 어떠한 순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었는데 비록 한 번의 방청이지만 대략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쉽게 해볼 수 없는 경험을 한 것 같아 좋은 기억으로 남게 됐다.

끝으로 이러한 활동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신청을 권유해주신 학교 담당자분과 함께 일하며 차근차근 알려주시고 도와주신 총무담당관실 직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특히 총무팀 직원분들께 행복했고 감사하던 마음을 전한다.



# “오늘은 내가 도의원” 청소년들 의정체험 활기

## 모의의회 경연대회 우수학생 해외서 연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23년 중·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우수학생 35명을 대상으로 한 해외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해외연수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일본 오사카와 교토, 고베에서 진행됐다.

주요 일정으로 재일교포의 역사와 일본 다문화와 공생하는 지혜를 배우기 위해 오사카 역사자료관을 탐방했다. 또한 재일본 제주4·3희생자 위령비가 있는 통국사를 방문해 제주4·3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참배의 시간을 가졌다.

김경학 의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일본 문화를 체험하고 일본에 살아 숨 쉬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지혜를 배워 제주 미래 주역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운영 중인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프로그램에 지역 학생들의 활발한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수산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오는 11월8일까지 프로그램 운영이 예정된 가운데 총 17개 학교 및 단체가 참여하게 된다.

청소년의회 의정체험은 제주 미래 세대 대상으로 지방의회 의정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기능의 이해를 돕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특히 7~8월에는 방학 기간을 맞아 오현중학교, 표선고등학교, 제주

##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11월까지 14곳 참여 의회에 대한 이해 높여

중앙여자고등학교, 동홍동 어린이 주민자치위원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탐라교육원, 나비봉사단 등 10개 학교 및 단체의 참여가 이어졌다. 참가 학생들은 직접 의장, 의원, 도지사, 교육감 등의 역할을 맡아 심사보고와 찬반토론·전자표결, 도정·교육행정질문과 답변, 3분 자유발언 등을 진행하면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했다.

특히 3분 자유발언에서는 학생들

이 학교 생활을 비롯해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공감대 형성에 나서기도 했다.

또한 도의원과의 만남을 통해 직접 지방의회의 역할과 의원들이 지역 주민을 위해 하는 일을 알려주는 한편 평소 궁금했던 사안들에 대해서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도의원과의 만남에 참여했던 의원들은 “의정체험을 통해 경찰과 토론 문화를 배워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건강한 인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청소년의회 의정체험은 10월과 11월에도 3개 학교 및 단체의 참여가 예정돼 있다.

## 8월 공감·소통의 날 개최

### 14일 항일운동 전문가 특강 뮤지컬 영화 ‘영웅’ 관람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4일 롯데시네마 제주아라관에서 의원 및 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8월 공감·소통의 날을 개최했다.

이번에 열린 공감·소통의 날은 광복절을 맞이해 제주 항일운동에 관한 전문가 특강과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1년을 그린 뮤지컬 영화 ‘영웅’ 관람으로 진행됐다.

특강은 고영철 제주흥사단 문화유산답사회장이 강사로 나서 제주의

병항쟁, 학생 항일운동, 법정사 무장 투쟁 등 제주항일운동의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이날 참석한 직원들은 “광복절을 기념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나라 사랑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경학 의장은 “오늘의 자유와 평화를 이룰 수 있게 희생하고 헌신하신 수많은 애국 지사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숭고한 희생정신을 마음 깊이 되새기고 최고의 예우로 보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집중호우 피해지역 이재민 돕기 한뜻

### 제주도의회, 성금 전달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달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입은 중·남부 지역의 이재민을 돕는 데 마음을 모았다.

지난달 24일 김경학 의장은 대한적십자사 제주도지사를 방문해 이재민 돕기 성금 609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마련됐다.

김경학 의장은 “우리 도의회는 피해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되기를 희망하며 기부에 동참하게 됐다”며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매년 연말연시 이웃 사랑 나눔 성금 기부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것 외에도 지난해 경북·강원지역 산불 피해 이재민 돕기, 올해 튀르키예 지진 피해 돕기 등 지원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